

인사잡음 추스리고 국정쇄신 다잡는다

■ 휴가서 돌아온 박대통령 ‘靑 깜짝 개편’ 배경과 전망

정무수석에 비정치인... 이정현 수석 역할 더 커질 듯

김기춘 비서실장 발탁에 호남 배려 속 일부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62일만인 5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 4명을 전격 교체한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두 달여 간 공석인 정무수석을 메우는 정도가 예상됐지만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예상을 뛰어넘는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허태열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한 것은 물론 공석인 정무수석비서관을 제외한 8명 중 절반을 교체하는 사실상 2기 참모진의 출범을 결정한 것이다.

◇문책성 인사(?)=허 실장 교체 배경은 새 정부 초반 계속된 인사파동 등 인사 관련 불협화음 등과 관련해 책임을 묻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허 실장의 정국상황에 대한 온건한 대응이 박 대통령과 다소 의견이 맞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허 전 실장 측은 “수석 4명이 교체되는 마당에 자리를 지키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6개월은 국정운영의 주춧돌을 쌓는 시간이었고 이제 후임자가 주춧돌 위에 경제살리기 등 집짓기를 해야하지 않겠는가”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잡음의 담당자인 곡상도 민정수석은 새 정부 초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할 때부터 경질설이 나왔다.

최상대 고용복지수석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그동안 여러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추진했을 텐데도 위반사항과 지적사항이 줄지 않아 참 답답하다”고 질책성 언급을 들은 뒤 이번 인사에서 경질됐다.

◇하반기 국정 운영 고삐 죄기=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시중에서는 아직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등 방향성이 모호하며, 창조경제와 고용·복지 등 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내세운 핵심 어젠다가 표류하거나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따라서 청와대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운영의 고삐를 다시 죄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이제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박 대통령의 각오가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정현 수석에 더욱 힘 실려=박근혜정부 집권 초기 인사 문제가 잇따라 터졌을 때 정치권에서는 인사 검증 실패의 진원지로 민정수석실을 겨냥했다.

이에 궁지에 몰린 민정수석실은 정무수석실을 거론하며 단독으로 비판을 받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민정수석이 바뀌고 당시 정무수석을 맡았던 이정현 홍보수석은 청와대에 남았다. 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에 비정치인이 임명되면서 그동안 간접적으로 정무기능까지 담당했던 이 수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나아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호남 인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부인이 광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간접적으로나마 호남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에스맨 실장·초보 정무수석’ 우려도=무엇보다 비서실장에 박 대통령의 ‘원로그룹’인 7인회 멤버로 알려진 핵심 측근인 김 전 법무장관이 임명된 것을 놓고 ‘에스맨 비서실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강경 보수론자로 구분되는 김 실장의 발탁은 야당과의 관계에서 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5일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새로운 참모진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신임 수석 프로필				
직책	정무수석	민정수석	미래전략수석	고용복지수석
이름	박준우(60)	홍경식(62)	윤창번(59)	최원영(55)
출신	경기 화성	경남 마산	서울	경남 창녕
학력	-중고 -서울대 법학과 -동대학원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동대학원	-경기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합동비이대 경영대학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학박사	-대구 대건고 -경북대 행정학과 -동대학원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사회복지학 대학원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
주요 경력	-외무고시 합격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장 -별기에 구주연합회 이사	-사법고시 합격 -서울고검 검사장 -법무연구회 회장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학장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	-행정고시 합격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연말뉴스

어불이거식 대처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더욱 심각한 정국 경색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욱이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무수석에 정치권 경험이 전혀 없는 정통 직업의교관 출신 인사가 발탁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jkpark@



청와대 새 컨트롤타워 김기춘 실장

朴대통령의 원로그룹 ‘7인회’ 핵심

부인 광주출신... 호남과 인연 각별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새로 임명한 김기춘(74) 전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김 실장은 1964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부인으로 광주 출신을 맞는 등 광주와 남다른 인연을 맺어왔다. 또 정치를 하는 동안 광주의 많은 인맥이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실장의 박 대통령과 인연의 시작은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시작됐으며 검사 시절인 1974년에는 육영수 여사 살해범인 문세광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말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사위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 역시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인연이 남다르다. 지난 6월에는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를 맡았다.

이 같은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력이 그를 옥죄 가능성 있다. 우선 유신헌법 초안 마련이 지적된다. 김 신임 실장은 검사 시절이던 지난 72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유신헌법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이 당사자라는 점은 더욱 그의 행보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12월11일 부산 초원복국집에서 당시 법무장관이던 김 신임 실장은 경찰청장과 안기부 지부장 등 부산지역 관계 기관장들과 모며 김영삼 당시 여당 후보의 선거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것이 야당 정주영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 도청돼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실장은 지난 2004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 소추위원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실로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김기춘 프로필

출생 1939년 11월 25일(경남거제)
현직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학력 경남고, 서울대 법대
원로그룹 ‘7인회’ * 멤버

주요 경력
1988~1990년 검찰총장
1991~1992년 법무부 장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거제, 신한국당, 한나라당)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거제, 한나라당)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거제, 한나라당)
2009년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현)
2012년 새누리당 상임고문(현)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대표적 원로그룹인 ‘7인회’는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계기로 박 위원장의 주변에서 그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7명의 원로그룹을 일컫는다. 강창희 국회의원(67)·김용환(81)·최병렬(75)·김용갑(77)·김기춘(74) 전 의원·안병훈(75) 전 조선일보 부사장·한경대(74) 전 의원 등이 멤버로 알려졌다.

으로 활동했다. 당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김 실장의 발탁으로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돕는 대표적 원로그룹인 ‘7인회’가 재조명 받고 있다. 7인회는 김 실장을 비롯해 강창희 국회의장(67)을 비롯해 김용환(81)·김용갑(77)·최병렬(75) 전 의원, 안병훈(75) 전 조선일보 부사장, 한경대(74) 전 의원이 멤버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함에 따라 ‘7인회’ 멤버 중 새 정부에서 중용된 인물은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두 명으로 늘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원시

순정파 먹거리 남원

충향애인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우리는 민입니다

세상이 점점 빨라질수록 새로운 것에 자꾸 사로잡히고 간편해진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먹거리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언제나 변함없는 충향이의 마음처럼 농민의 진심을 지켜갑니다